# 광산구 '자원회수시설 국제 심포지엄' 개최

오는 6일 호남대서…시민 인식 전환의 장 기대 덴마크 소각장 '아마게르 바케' 책임자 등 참여

광주 광산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국제 학술토론회(심포지엄)를 개 최한다.

1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2 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'자원 회수시설 바로알기 국제 심포지엄'을

광산구와 호남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가 직면한 쓰레 기 처리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심포지엄은 ▲부대행사 ▲기념식 ▲ 기조강연 ▲발표토론 ▲질의응답 순으 로 진행된다.

부대 행사에선 방송인으로도 알려진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'기후행동 이야 기 공연(토크콘서트)'을 진행한다.

기조 강연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 화 관련 권위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 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가 '폐기물 처리 이슈와 자원순환 시설 설 치와 운영 동향'을 강의한다.

발표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

시민 대표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

토론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 에너지 재생산,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해 송창수 호남대 AI(인공지능)교양 대학장, 예스퍼 크누센(Jesper Knuds en) 주한 덴마크 대사관 에너지 참사 관,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'아 마게르 바케' 총괄책임자인 닐스 토르 로스테드(Nils Thor Rosted), 나마이 슈이치(生井秀一) 요코하마 자원순환 국 적정처리부장, 줄리안 퀸타르트 유 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, 이규옥 경 기하남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한다.

박병규 광산구청장은 "광주가 직면 한 쓰레기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

급한 과제이며, 모든 시민이 함께 해결 해야 할 사회적 책임"이라며 "이번 국 제 학술토론이 폐기물 처리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 시 설을 지역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준 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

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 정이나 광주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 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상태다.

지난달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후보 지 평가를 진행한 결과 광산구 동산·삼 거·지평동, 서구 서창동 등 총 4곳이 타 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.

/이옥근기자



### 서구, 동절기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

관내 9개 건설 현장···안전시설물·콘크리트 양생 등

광주 서구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

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오는 6 안전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 주 일까지 지하 2층, 대지 3천㎡ 이상 및 굴 착 깊이 10m 등의 관내 건설공사장 9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.

의거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, 비상 연락망 구축・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물 설치 적정성 ▲한중콘크리트 사 용・보온 양생 등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여부 ▲폭설 강설 대비 시설물 붕괴 전도방지 및 결빙구간 미끄럼

방지 대책 등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.

서구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해 접근통제 등 신속한 체에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.

또 보수·보강,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 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중·단기 주요 점검사항은 ▲안전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해 관리토록 조치하며 위 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.

> 서구 관계자는 "선제적인 안전점검 을 통해 겨울철 공사현장 사전 위험요 소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주성학기자

#### 동구, '제3기 혼밥식당' 4개소 지정

광주 동구는 "최근 '제3기 동구 혼밥 식당'으로 선정된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"고 1일 밝혔다.

3기 혼밥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▲레 브 ▲한날한식 ▲신화 ▲황실 등 4개소

동구는 이들 4개소와 업무협약을 통 해 유기적인 협조 등을 약속하고 지정 표지판을 전달했다.

앞서 동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1인 가 구 비율이 높음에 따라 주민들이 혼자 서도 식사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음식 점을 발굴, 지난 2022년부터 '동구 혼밥 식당'으로 지정해 왔다.

관내 혼밥식당은 2022년 1기 19개소 를 시작으로 2023년 2기 5개소가 추가 됐는데, 올해 협약으로 총 28개소가 이 름을 올렸다. /안재영기자



건강동아리 성과 공유회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에 참여한건강 동아리 회원들이 무 대 발표회를 갖고 있다.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축제의 장인 이날 '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공유회'에는

센터 이용 주민과 건강지도자, 건강동아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

## 남구 '2025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모' 선정

7년 연속 '쾌거'…국비 28억 투입 태양광 설비 보급

광주 남구는 1일 "산업통상자원부 내 17개 동 주택과 상가 건물 등 1천990 (이하 산업부)의 '2025년 신재생 에너 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'에서 A등급 을 받아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"고 밝

공모에서는 ▲2024년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시공·수행 능력 ▲지방비 자 부담 비율 ▲2025년도 사업에 참여하 는 컨소시엄 기업의 적정성, 중장기 계획, 사후관리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과를 거뒀다. 가 이뤄졌다.

재생 에너지 보급률 50%를 목표로 지 난 2018년부터 산업부 공모에 참여, 선 양열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. 정돼 왔다.

한 남구는 매년 지방비 매칭을 통해 관 겠다"고 밝혔다.

곳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공급에 주 력해 오고 있다.

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심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'1가구 1발전소 프 전국 지자체 171곳이 참여한 이번 로젝트'를 추진하고, 에너지 자립률이 80% 수준에 이른 신효천마을에서 소규 모 독립형 전력망 실증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에 공급해 마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성

이번 공모에서 A 등급을 받은 남구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 신 는 다음 해 관내 주택과 공동주택, 상가 건물 328곳 및 시설 6곳에 태양광 및 태

남구 관계자는 "탄소 중립과 녹색 성 총 6번에 걸쳐 국비 159억원을 확보 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/주성학기자

### 한강 노벨상 시상일 비엔날레서 '문학의 밤'

북구, 오는 10일 오후 4-6시 기념식·부대행사 개최

광주 북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 상 수상을 주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 하는 자리를 갖는다.

0일 광주비엔날레 일원에서 '북구 문학 의 밤'행사를 개최한다.

**CMYK** 

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 고, 그의 작품을 매개체로 주민과 함께 의 주요 구절 낭독회가 열린다. 소통하며 지역의 문학 발전을 도모하 1일 북구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스웨 고자 마련됐다. 오후 4시부터 거시기홀 덴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오는 1 에서 열리는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 로 각종 부대행사가 오후 6시까지 이어 진다. 기념식 첫 축하공연은 '안녕이라 문학의 밤 행사는 한강 작가의 대한 말했다 해도', '12월 이야기' 등 한강 작

가의 자작곡으로 시작된다. 이어 '한강 작가 소개 및 북구민 축하 영상'이 상영 되고 한강 작가 작품 '소년이 온다' 등

축하 멘트 등 '한강 작가에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풍등 날리기 퍼포먼스'가 미 거운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작가를 디어파사드를 통해 펼쳐질 예정이다.

품 필사존', '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포 다"고말했다.

도 ▲북 커버 만들기 ▲크리스마스 비 누 만들기 ▲책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 기 등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. 문인 북구청장은 "한강 작가 노벨문

토존'등 부대행사가 개최된다. 이 밖에

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수 상이라는 위대한 업적이자 북구 향우 이후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학인이 이뤄낸 국가적 경사"라며 "이번 수상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 꿈꾸는 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비엔날레 광장에서는 '한강 작가 작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 /안재영기자

+



